

6·25전쟁 중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 조직·부대 및 함정·장비를 중심으로 -

林 成 采*

1. 머 리 말
2. 6·25전쟁 발발과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3. 한국해군의 조직·부대에 미친 영향
4. 한국해군의 함정·장비에 미친 영향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시대가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남북한에서는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체제 구축과 더불어 군사력 건설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형성된 세계적 냉전체제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가 하부구조였다면, 세계적 냉전체제는 상부구조였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미국은 대소(對蘇)봉쇄전략의 최전방에 위치한 한국에 대한 군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소련과의 정치적·군사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우선적으로 유럽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미국은 장차 세계대전은 미국 본토나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시작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은 대소(對蘇)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서유럽에서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극동에서는 전략적 수세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¹⁾

미국의 극동전략은 세계적 전략 요충지대로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이른바 대소봉쇄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구상되었다. 아시아 대륙 안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태평양방위에 필요한 국가나 도서가 공산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태평양방위선을 알래스카-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설정하여,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된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략공군의 핵무기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게 되어 태평양방위선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이를 단순히 북한만의 침략으로 보지 않았으며, 공산국가인 소련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취하여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72), pp. 41-43.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10.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어 한반도마저 공산화될 경우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미국은 공산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상 방위의무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여 유엔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공산권 국가에 보여주기로 하였다.³⁾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보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 외곽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을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남쪽 해로에 대한 방위가 불가피하여 대만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미국은 기존의 태평양방위선에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켰다.⁴⁾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고 전쟁 이전의 남한국토를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한국군에게 공격무기를 제공해야 했으며, 전쟁당사국인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장비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쌍방 간의 이익이 상호 일치됨에 따라 한국군이 필요한 무기나 장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군의 당면 과제였던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력이 단기간에 구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은 단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군사력 증강은커녕 북한의 무력에 의해 적화되었을 지도 모른다. 전쟁기간 중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미국이 어떤 정책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한

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183-207.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11.

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기간에 수행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해군력 증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 중 미국이 수행한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해군력은 조직·부대, 작전·전술교리, 함정·장비, 전문인력,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대원의 정신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해군의 조직·부대와 함정·장비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0년 7월 27일까지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주로 정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병력, 함정의 척수, 톤수, 함포의 크기 등 수치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논제와 관련하여 과거에 연구한 실적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6·25전쟁기를 중심으로 한국해군력 증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6·25전쟁기를 제외한 한국해군력 발전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다수 있지만, 일부는 창군기(1945~1950)에 대한 연구이고, 대부분이 미래의 해군력 발전에 대한 연구이다.⁵⁾ 군사사(軍事史) 편찬을 주 임무로 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1권의 『한국전쟁사』를 편찬하였지만, 최근에 전쟁 당사국들이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쟁사를 토대로 재편찬 작업에 들어가 2004년부터 『6·25전쟁사』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6·25전쟁 중 중공군과 북한군을 포함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군사력 운

5) 대표적인 박사논문으로는 안정애의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한국군 창군과정(1945-1950)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6); 한용원의 「한국군의 창군과정과 미군의 역할」(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83); 김일상의 「한국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4)이다.

용과 작전경과 위주이며, 각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해군역사를 편찬하는 해군본부의 역사관리기록단에서도 편년체에 의한 주요 사건만을 기술했을 뿐이고, 해군의 전력증강에 대해 분석·평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차후 연구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에 대한 내용은 주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서 발간한 공간사(公刊史)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국해군력에 대한 내용은 해군본부에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편찬한 『대한민국 해군사』와 1992년에 발간한 『해군편제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해군본부에서 발간한 이 문헌들은 시대순에 의해 역사적 사건만이 개술되어 있는 관계로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충족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와 문헌내용 중 불명확하고 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창군시기 해군에 복무했던 해군 출신 원로로부터 증언 청취한 자료를 통해 해결하였다. 국방부, 해군본부 등에서 발간한 공간사로부터 수집할 수 없는 내용은 논문, 학술지, 책자 등 2차 자료로 보충하였다.

2. 6·25전쟁 발발과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6·25전쟁 발발 이전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전면전쟁과 같은 대규모 침공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치안유지와 38도선에서 남북한 간의 소규모 군사충돌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군 육성에 두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미국은 전투함, 전투기, 전차 등 공격용 무기를 제외한 방어용 장비만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었다.⁶⁾ 이와 같은 미국의 소극적인 군원으로 인하여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후 남북한

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 즉 남한은 국내 치안 및 38도선 경비만을 위한 소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데 반하여, 북한은 남침을 위한 대규모 공격이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한은 육·해·공군의 병력이 모두 105,827명이었으나, 북한은 214,880 명으로서 남한보다 약 2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비에서는 북한이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비롯하여 SU-76 자주포 176문을 소련의 지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전차나 자주포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공군 또한 북한은 전투기를 포함하여 연습기 211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이 연락기와 연습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⁷⁾ 이와는 달리 해군의 경우에는 남한의 해군력이 북한보다 다소 우위에 있었다. 전쟁 발발 이전 북한해군은 경비함정 30척, 지원함정 5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해군은 3인치 포가 장착된 전투함(PC) 4척을 포함하여 경비함정 33척, 지원함정 4척을 보유하고 있었다.⁸⁾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남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1950년 6월 25일 남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성, 국방성, 합참이 포함된 전쟁지휘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북한군을 격퇴시켜 전쟁 이전 상태로 남한국토를 회복시키기로 하고, 이를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북한의 남한침공이 유엔과 미국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과 일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유엔안보리는 6월 27일 '북한의 남침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선언하고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⁹⁾ 이에 미국은 6월 27일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1977), pp. 37-38.

8) 임성채, 「미국의 6·25전쟁전략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2008, p. 78.

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 128.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2004), p.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로서 해군과 공군지원을 결정하고, 7월 1일에는 미지상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도 유럽의 공산주의 세력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위협적인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이어 한반도마저 공산화될 경우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과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지역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 계기로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상 방위 의무의 유무를 떠나서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공산권 국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⁰⁾ 따라서 미국은 종전의 극동전략에 수정을 가하여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었던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에 군대를 즉각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¹¹⁾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유엔조직을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유엔군사령부 창설을 비롯해 유엔군을 지휘할 작전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유엔이 한국에 군사원조를 실시한다는 결의안에 따라 미국정부는 6월 27일 미 제7함대가 일본에 위치한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고, 미 극동공군에 7월 8일 전략폭격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엔은 7월 7일 유엔회원국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될 군대파견과 원조제공을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에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유엔군을 지휘할 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미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8월 25일에 전쟁에 필요한 제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일본군수사령부(JAPLOGCOM)를 창설하였다. 유엔군사

10)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pp. 183-207.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14.

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구성군인 미 제8군사령부(지상군), 미 극동해군사령부,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해 유엔 지상군·해군·공군의 작전을 지휘하였다.¹²⁾

미 극동해군은 미 7함대에 대한 작전통제와 함께 전쟁수행에 필요한 기동조직을 개편하였다. 전쟁발발 당시 미 극동해군의 예하에는 수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제96기동부대(TF 96)와 상륙부대인 제90기동부대(TF 90), 일본선박통제국의 함선들이 있었다.¹³⁾ 제90기동부대는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주일 미 육군의 상륙작전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에 있었다. 일본인들에 의해 운용되었던 일본 선박통제국의 선박들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이 통제하고 있었으며,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수지원과 일본군 전쟁포로를 일본으로 송환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¹⁴⁾

미 해군력 투입이 결정된 6월 27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중장은 미 극동해군이 수행할 임무를 작전명령 제5-50호로 시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 히긴스(John M. Higgins)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 함대소해함(AM) 6척으로 한국지원전대가 편성되었다. 이 전대는 제96기동부대 예하로서 기동조직 명칭이 제96.5기동전대(TG 96.5)로 부여되었다.¹⁵⁾ 또한 이 명령에 따라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해군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7함대는 대만의 중립화를 위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여 중공군의 대만침공이나 대만의 중국본토에 대한 군사행동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¹⁶⁾

7월 3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부산으로 향하는 수송함선의 호송과 북한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 극동해군의 작전명령

1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p. 43.

13)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 45.

14) Ibid., p. 46.

15) Ibid., p. 52.

16) Ibid., p. 54.

제8-50호를 시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 7월 5일 제96기동부대 예하에 호송전대로서 제96.1기동전대(TG 96.1), 미국의 함정들로서 제96.5기동전대(TG 96.5), 영연방 함정들로서 제96.8기동전대(TG 96.8)가 편성되었다. 제96.5기동전대는 히긴스 미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동해안에서, 제96.8기동전대는 영국 극동해군부사령관 앤드루스(William G. Andrews)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서해안에서 작전하게 되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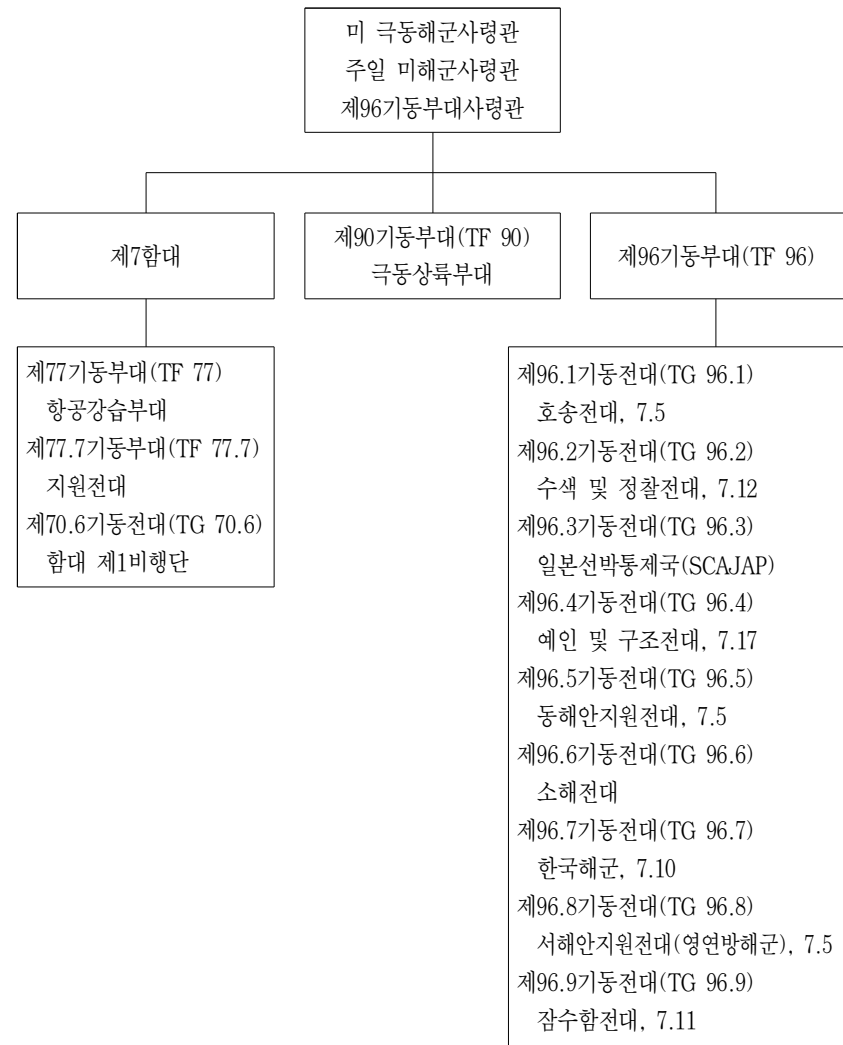
미 극동해군의 기동조직은 [그림 1]과 같이 사실상 작전명령이 시달되기 이전인 6월 27일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동조직은 7월 20일까지 적용되었다. 이후 미 극동해군의 기동조직은 전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¹⁸⁾

한국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기 이전 7월 10일 제96.7기동전대(TG 96.7)로 편성되어 미 극동해군의 작전지휘를 받았다.¹⁹⁾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전쟁 초기부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협의되어 왔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는 유엔군과 한국군 간의 작전지휘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7월 14일 무초 주한 미대사를 통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무초 대사는 7월 16일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맥아더 장군이 작전지휘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로써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 행사가 법적으로 승인됨으로써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조직으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3권(서울: 국방부, 2006), p. 705.
 18) 미 극동해군은 증원전력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함에 따라 1950년 7월 21일 기동조직을 재편하였고, 이후 해상봉쇄 및 호송작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50년 9월 12일에 제96.5기동전대를 제95기동부대로 승격시켜 기동조직을 재편하였다[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pp. 124, 211].
 19)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 57.

[그림 1] 미 극동해군 기동편성(1950. 6. 27~7. 20)



출처 :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p. 57.

유엔군을 총괄 지휘하는 작전지휘체계를 수립한 미국은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시킨다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6·25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전쟁을 치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의 연합작전에서 전략·작전목표, 작전지역, 무기운용 등이 제한되거나 규제되었다. 전략·작전목표와 작전지역은 전황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무기운용은 전쟁기간 내내 재래식 무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핵무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을 지휘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미 극동해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미 합참 등 상급부대로부터 지침을 받아 예하의 유엔해군을 지휘하였다. 유엔군은 해상을 통해 작전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군력을 연합작전의 전투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유리한 전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해양통제권 장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²⁰⁾ 이를 위해 그는 한반도의 해양환경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한국해군이 연합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함정, 장비 등을 한국해군에 지원하였다. 한국해군이 전쟁발발 이전부터 함정과 장비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 전쟁발발로 인하여 한미 상호 간의 이익이 일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미 극동해군은 한국해군과 재래식 무기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군작전에 필요한 유형별 함정과 장비를 한국에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상륙작전에 필요한 해병대의 전투무기, 소해작전을 위한 소해장비, 봉쇄작전 및 호송작전을 위해서는 한국해군에 대잠·대함·대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과 장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대한군사지원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소극적 지원정책에서 전쟁의 계기로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적극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서울: 국방부, 2006), 제3권, p. 97.

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²¹⁾ 미국은 6월 26일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이하 미 군사고문단)이 요구한 보급물자를 긴급히 수송할 것을 결정하고, 미 극동군사령부에 10일간의 탄약과 보급품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토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맥아더 장군에게 미 극동군사령부의 재고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한국군에게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의 규정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7월 1일 미 지상군의 참전 결정으로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전쟁물자는 미국이 전담하였다.

전쟁발발 이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1950년 1월 26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한 정상군원은 그대로 유지되 미군에 의한 직접군원 방식이 병행되었다.

유엔이 6월 27일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 투입과 함께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격무기를 비롯한 유류·총포·탄약·차륜·물자 등을 한국에 지원하였다. 이때 한국군이 받은 원조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수령한 군수물자를 자대의 군수지원계통을 통하여 한국군 부대에 직접 보급한 것이다. 이른바 '직접군사원조'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²²⁾

원조규모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연감·4290』에 의하면 연간 3~4억 달러로 추산되고,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이유는 전쟁기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던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미군의 군수지원계통으로 수령함에 따라 미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을 국가별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21)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p. 316-317.

22) 위의 책, p. 317.

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외원조법이나 군사지원계획에 의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미군의 군수물자 중 일부분을 처리하였기 때문이다.²³⁾ 이와 같이 전쟁기간 미군의 직접군원에 의해 한국해군은 단기간 내에 전투합정을 비롯한 장비 및 물자를 대폭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상적인 군사원조와 미군의 직접군사원조를 받아 전쟁을 수행하던 중 1952년 1월 7일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해 미국과 새로운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상호방위원조법에서 상호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대외원조 중점이 경제원조 위주에서 군사원조로 전환되었고, 경제·군사·기술 원조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원조가 미국과 피지원국의 상호안전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안전보장처를 통하여 집행되도록 통합되었다.

즉 경제협조처를 통한 원조는 중단되고 상호안전보장처로 통합된 것이다. 그런데 전쟁기간 중에는 주로 미군에 의한 직접군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군원은 극히 일부의 물자도입과 군사교육 등에 국한되었으며, 그 규모는 1,5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기간 정상군원에 의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규모는 <표 1>과 같다.²⁴⁾

<표 1> 6·25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규모(정상군원)

(단위 : 100만 달러)

연 도	1950	1951	1952	1953	계
규 모	0.1	10.8	0.8	3.7	15.4
한미원조협정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상호안전보장협정		
대외원조법	상호방위원조법(MDAA)		상호안전보장법(MSA)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 국방부, 1987), p. 319.

23) 위의 책, pp. 317-318.

24) 위의 책, pp. 318-319.

3. 한국해군의 조직·부대에 미친 영향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시킨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순기능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엔해군조직의 일원이던 한국해군은 연합해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유엔해군의 지휘체계와 연계하여 조직과 부대를 정비하였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조직 및 부대 발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유엔군의 작전지휘체계라 할 수 있다.

전쟁발발 이전에도 한국해군이 미 군사고문단의 지원에 의해 조직과 부대를 개편하였지만 합정,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해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에 있었다. 전쟁발발 이전 해군본부 예하에는 진해통제부·인천경비부·목포경비부·목호경비부, 부산기지·군산기지·포항기지, 제1정대·제2정대·제3정대·훈련정대, 해군사관학교, 인천해군병원,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합정들은 4개 정대에 예속되어 경비부와 기지에서 훈련, 정비 또는 경비 중에 있었다. 제1정대는 서해, 제2정대는 동해, 제3정대는 남해, 훈련정대는 여수-진해 간 해역을 각각 담당하였다.²⁵⁾ 해군병력은 1,166명의 해병대 병력을 포함하여 모두 7,790명이었다.²⁶⁾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7월 10일부로 유엔해군의 제96.7기동전대(TG 96.7)로 편성된 한국해군을 미 해군 루시(Michael J. Lousey) 중령의 지휘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45. 8~1950. 6』(서울 : 국방부, 1984), p. 362.

26)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해군본부, 1954년)의 75쪽에는 해군의 총병력이 6,956명으로 기술되어 있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45. 8~1950. 6』(국방부, 1984년)의 370쪽에는 해군의 총병력이 7,715명으로 되어 있다. 해군 본부의 기록에는 총병력 합산에 사관생도 인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국방부의 기록에는 1947년 6월 21일에 설치된 제주수영 병력이 누락되어 있다. 누락된 부대의 병력을 합산한 결과 해군의 총병력은 7,790명이라 추산할 수 있다.

를 받도록 하였다.²⁷⁾ 실질적으로 한국해군에 대한 작전지휘는 제96.7기동전대장(CTG 96.7) 예하의 한국 해군총참모장(CTE 96.70)의 작전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루시 중령은 제96.7기동전대장에 임명되자 곧바로 해군총참모장인 손원일 제독을 통해 해군작전에 필요한 무기 확보와 함께 조직과 부대를 정비하였다.²⁸⁾ 7월 5일부터 미합정으로 구성된 96.5기동전대, 영연방 함정으로 구성된 제96.8기동전대가 편성되어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을 담당함에 따라 한국해군은 7월 10일부터 37도 이남의 동·서·남해에서 작전을 하게 되었다.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대형함정이 작전하는데 제한을 받는 내해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96.7기동전대 예하의 제1정대는 서해, 제2정대는 동해, 제3정대 및 훈련정대는 남해 경비를 수행하였는데, 전황에 따라 정대의 함정세력은 수시로 바뀌었다.

미국으로부터 해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함에 따라 1950년 7월 21일 제96기동부대가 일부 재편되었다. 96.5기동전대 예하에 호송단대, 제1동해안지원단대, 제2동해안지원단대, 서해안지원단대로 구성되고, 96.8기동전대는 항모호송전대로 편성되었다. 서해를 책임지고 있던 영연방 해군은 서해안지원단대를 맡았고, 한국해군은 제96.7기동전대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다.²⁹⁾ 유엔해군은 해상봉쇄 및 호송작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50년 9월 12일 제96.5기동전대를 토대로 제95기동부대(봉쇄 및 호송부대)를 창설하여, 그 예하에 동해안전대(제95.2기동전대), 서해안전대(제95.1기동전대), 소해전대(제95.6기동전대), 한국해군(제95.7기동전대)을 두었다.³⁰⁾

한편 한국해군은 1950년 8월 16일 훈련정대 해체와 동시에 제1정대를

모체로 하여 제1함대를 창설하고, 12월 15일에는 제2정대, 1951년 1월 5일에는 제3정대를 각각 제1함대에 통합시켰다.³¹⁾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이 겸임했던 제1함대사령관에는 1953년 5월 24일에 박옥규 소장이 임명되었다.

한국해군은 제1함대의 창설과 더불어 1950년 10월 23일에 소해정을 통합하여 제1소해정대를 편성하고, 1951년 12월 23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함정을 통합하여 서해전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52년 2월 7일에는 4척으로 PT편대를 편성하였으며, PT편대본부를 진해기지에 설치하였다. 1951년 3월에는 함정교육단을 설치하였다.³²⁾

전쟁 중 성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함정세력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자 한국해군은 1952년 8월 1일 진해에 함대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에 동해전대·서해전대·남해전대·호송전대·수송전대·소해전대·PT편대·함정교육단을 편성하였다.³³⁾ 이 가운데 함정교육단을 제외한 여타의 부대는 제95기동부대 및 제96기동부대 예하의 기동전대와 연계하여 조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과의 연계는 유엔해군이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서 한국지형에 익숙하고 상대역(counterpart)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군과의 연합작전 필요성에 기인하였다.

한국해군은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해군의 PF함은 일본의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은 후 제96기동부대 예하의 제96.8기동전대(항모호송전대)에 합류하여 항모 또는 수송선단에 대한 호송작전을 실시하였고, 소해전대는 일본의 사세보항에서 소해장비를 보강하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제95기동부대 예하의 제95.6기동전대(소해전대)와 연합소해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유엔해군에 의해 수행된 일명 '기차사냥'³⁴⁾에서 한국의 PT편대는 대형함이 접근할 수 없는 내

27)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대전: 해군본부, 1954), p. 35.

28)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2집(대전: 해군본부, 1957), p. 4.

29)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 124.

30) Ibid., p. 211.

31)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대전: 해군본부, 1992), p. 914.

32) 위의 책, pp. 48-50.

33) 위의 책, p. 48.

해에서 작전을 담당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외 한국해군의 동해전대·서해전대·남해전대·수송전대도 유엔해군의 상대역 역할과 함께 해역별 작전과 성분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해군의 해상부대는 유엔해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유엔해군의 기동조직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다. 편성의 특징은 한국해군이 동·서·남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과 영연방해군 등 유엔해군과의 연합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역별 그리고 성분작전별로 해상부대가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해군은 해군본부를 비롯한 육상부대의 조직을 전시체제로 정비하였다. 육상부대는 전황에 따라 수시로 철수, 해체, 복구됨에 따라 조직개편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개편의 특징은 행정적인 부대는 간소화 또는 폐지되고 유엔해군에 대한 지원 및 협조, 한국해군의 단독작전, 그리고 기지방어 작전 등에 주안점을 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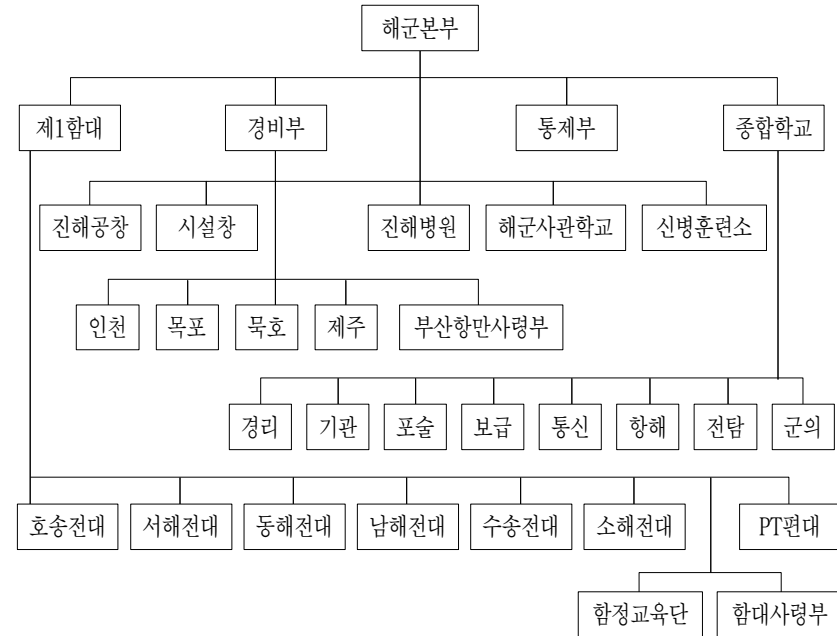
한국해군은 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증대한 만큼 조직과 부대도 확장되었다. 휴전 시 한국해군은 [그림 2]와 같이 제1함대·진해통제부·경비부·진해공창·시설창·해군병원·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각종 교육훈련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병력(해병대 제외)은 6,549명에서 14,862명으로 늘어났다.³⁵⁾

한국해병대의 조직과 부대는 미 해병대의 장비, 조직, 교리 등에 연계하여 발전되었다. 한국해병대는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미 해병대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미 해병 제1사단의 작명에 의하여 훈련,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 해병대가 한국지형에 익숙하고 상대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34) '기차사냥'이란 동해안의 기차선로를 따라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적의 기차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탄수가 적고 기동성이 뛰어난 PT정은 마치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처럼 해안 가까이 접근해 5인치 로켓포로 적의 기차를 격파하였다(오진근·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446-447).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376.

[그림 2] 휴전 시 해군 조직



출처: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대전: 해군본부, 1992), p. 49.

한국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되었으나 병력, 장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전쟁발발 직전에는 2개 대대 규모의 1,166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는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위해 8월 30일 기존의 제5·6중대 병력과 제주도에서 모집한 신병 3,000명으로 보병 3개 대대(제1·2·3대대)로 증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9월 1일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의 부대로서 해병대사령관과 참모장 예하에 인사국·정보국·작전국·후방국과 통신참모·헌병참모·의무참모·재정참모·정훈참모로 개편하였다.³⁶⁾

36) 위의 책, p. 148.

전쟁 초기 한국해병대는 한국육군에 배속되어 전투를 하였으나,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미 해병대에 배속되어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인천상륙작전계획에 따라 한국해병대가 9월 3일에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었고, 9월 6일 부산에서 한미해병대가 합류하였다.³⁷⁾ 제7합동상륙기동부대는 9월 15일 261척의 함대를 동원하여 미 해병대 제1사단과 한국해병대를 선두로 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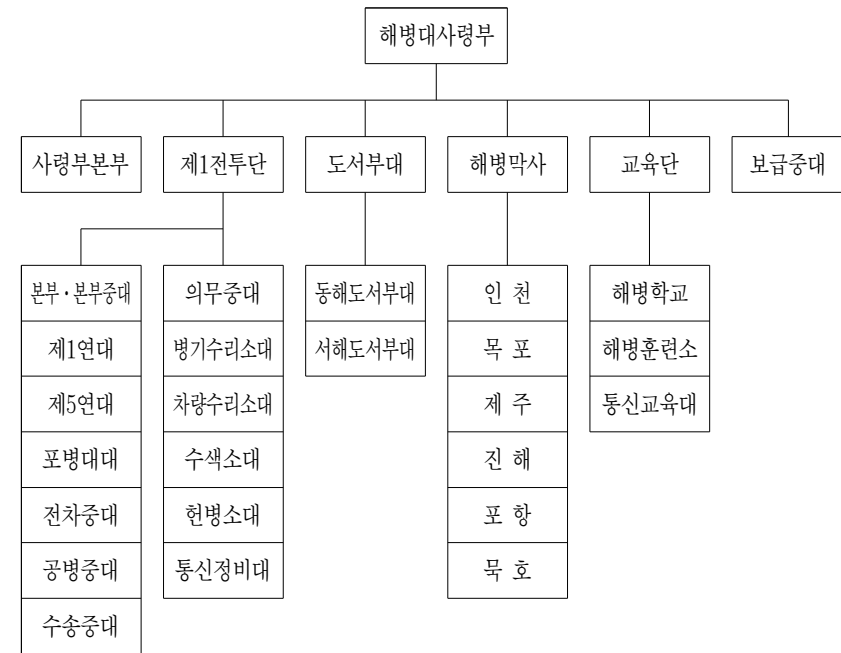
한국해병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함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을 전개하던 중 9월 26일에 김성은부대를 제5대대로 개칭하고, 12월 20일에는 기존의 제1·2·3대대를 기간으로 해병 제1연대를 창설하였다. 제1연대 창설과 함께 제5대대는 해병독립 제5대대로 개편되었다.³⁸⁾ 한국해병 제1연대의 편제와 장비표는 미 해병대의 편제와 장비표에 의해 정립되었고, 정식 인가는 1951년 2월 22일 한국의 해군본부를 통해 미 극동군사령부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³⁹⁾

한국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에 이어 원산, 함흥, 포항·영덕, 영월, 동부전선, 편치불 지구 등에서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실시하였다. 한국해병대는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및 부대를 확충하게 되었다. 해병대사령부는 제1연대를 중동부전선, 해병독립 제5대대를 김포반도에 투입하여 작전하던 중 1952년 3월 10일에 제1연대를 장단으로 이동시키고, 김포반도와 문산 지역에서 수도권방어에 임하게 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제1연대의 전력이 강화되자 1952년 10월 1일을 기하여 제5대대와 제1연대를 통합하여 제1전투단을 창설하였다. 이때 제1전투단은 제1연대·제5대대·포병대대·전차중대·공병중대·의무중대·수송중대 및 지원소대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편성으로 휴전 시까지 수도권 방어작전을 실시하였다.⁴⁰⁾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서울: 국방부, 1983), p. 109.
 38)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 해군본부, 1992, p. 929.
 39) 김현기, 「해병대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년 8월, p. 294.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378.

이와 같이 한국해병대는 전황에 따라 수시로 배속부대가 변경되었고, 조직과 부대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었다. 휴전 시 해병대사령부 조직은 해병대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참모장을 두고, 인사국·정보국·작전교육국·군수국과 보급감실·통신감실·병기감실·수송감실·공병감실·재정감실·법무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헌병감실 및 본부사령실·군목실로 편성되었다.⁴¹⁾ 그리고 해병대의 예하 부대는 [그림 3]과 같이 사령부본부·제1전투단·도서부대·해병막사·교육단·보급중대로 구성되었다.⁴²⁾

[그림 3] 휴전 시 해병대 조직



출처: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발안: 해병대사령부, 1961), pp. 219-220.

41) 위의 책, p. 148.
 42) 위의 책, p. 379.

해병대 병력은 전쟁 이전에는 2개 대대규모의 1,166명이었는데, 휴전 시에는 무려 22.1배인 27,500명으로 대폭 증강되었다.⁴³⁾ 해병대의 조직과 부대는 전쟁발발 이전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제주도의 공비토벌작전에서도 겨우 임무를 수행할 정도였는데, 전쟁을 계기로 전쟁수행이 가능한 조직과 병력을 갖추게 되었다.

조직과 부대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병력의 수에 의해 측정되고 있지만, 해병대 병력을 포함하여 해군의 병력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군의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는 해안에 상륙한 이후에는 지상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상군 편제와 비슷하게 조직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4. 한국해군의 함정·장비에 미친 영향

한국해군의 함정·장비 증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유엔해군의 연합작전과 미군의 직접군원이라 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전쟁 당사국으로서 연합작전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고, 유엔해군은 한국해역에 익숙한 한국해군의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함정과 장비 증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미군에 의해 직접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직접군원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한국해군은 전투함을 비롯하여 유형별 함정과 장비를 미 해군으로부터 직접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해군이 미 군정 시기부터 정부 수립 이전까지 획득한 함정은 모두 37척이었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건조한 경비정 1척(PG)과 일본해군이 사

용했던 소해정(JMS) 11척을 제외한 나머지 25척(LCI 6척, YMS 18척, YO 1척)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함정이었다. 획득한 함정 중에서 통천정(JMS), 고원정(YMS)이 납북되고 경산정(YMS)이 좌초됨에 따라 정부 수립 이전에 보유한 함정은 모두 34척이었다.⁴⁵⁾ 여기에 보조선박과 소형주정 71척을 포함하면 모두 105척이었다.⁴⁶⁾ 인수된 함정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과 일본해군이 운용했던 소해정으로서 무기 및 장비들이 철거되어 전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미국의 소극적인 군사지원에 따라 한국해군이 정부 수립 이후 전쟁발발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로 인수한 함정은 한 척도 없었다. 한국해군이 이 기간에 8척의 함정을 획득하였는데, 이 중 PC-701(백두산)·PC-702(금강산)·PC-703(삼각산)·PC-704(지리산) 등 전투함 4척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것이고, LST-801(천안)·AKL-901(부산)·YMS-515(운남)·GB-22(흑조환) 등 지원함정 4척은 한국교통부 소관이었던 배를 한국해군으로 이관한 것이다.⁴⁷⁾ 다행히 1950년 3월 중순경 하와이 진주만에서 PC-701함에 3인치 포가 설치되었고, 6월 중순경 샌프란시스코 발레이호에서 나머지 PC 3척에 3인치 포가 설치됨으로써 한국해군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PC-701함의 3인치 포는 국민의 성금으로 설치되었고, 나머지 PC 3척의 3인치 포는 미 군원자금으로 장착된 것이다. 미 국무성과 국방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발발 이전에 3인치 포가 설치된 것은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이 그의 뛰어난 협상력으로 미 국무성과 국방성의 인사들을 설득시킨 결과였다.⁴⁸⁾

전쟁발발 이전 한국해군이 보유한 함정세력은 PC 4척, YMS 17척, JMS 10척, PG 1척, LCI 1척, LST 1척, AKL 1척, YO 1척, GB 1척 등 총 37척

43)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국방부, 1998, p. 126.

44) 임성채, 「미국의 6·25전쟁전략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08, p. 67.

45)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대전: 해군본부, 1954), pp. 31-32.

46) 위의 책, p. 50.

47)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 해군본부, 1992, pp. 958-959.

48) 오진근·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 301.

이었다.⁴⁹⁾ 여기에 보조선박 43척을 포함하면 가용한 함선의 척수는 80척이었다.⁵⁰⁾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해군은 제한전쟁의 성격하에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호송 및 봉쇄작전, 함포지원작전, 수송작전, 소해작전, 상륙작전 등 대부분의 성분작전을 치러야만 했다. 한반도 해양환경에 익숙한 한국해군에게는 전쟁당사국으로서 유엔해군과의 연합작전에서 상대역 임무수행과 함께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 유엔해군을 주도하고 있었던 미 해군은 한국해군이 상대역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함정이나 장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송작전을 위한 수송함,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대의 전투무기, 소해작전을 위한 소해장비, 봉쇄작전 및 호송작전을 위한 함정과 장비를 한국해군에 지원하게 되었다.

유엔군을 지휘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이 전쟁을 신속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외군사원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이전부터 시행된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한 군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무기, 장비를 비롯한 전쟁물자를 전장에서 지급하는 직접군원 방법을 시행하였다.⁵¹⁾ 미군의 직접군원에 의해 한국해군은 현장에서 함정과 장비를 비롯하여 군수물자를 수령하게 됨으로써 6·25전쟁 기간에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될 수 있었다.

한국해군은 전쟁발발 이전 미국에서 구매거부를 당했던 PF(호위함)까지도 인수하게 되었다. 1950년 9월 12일, 제95기동부대사령관에 임명된 스미

49) 6·25전쟁 발발 이전 한국해군의 함정세력 37척이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해군본부, 1954)에 기술된 33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행정편 제1집에는 PC 3척과 YMS 2척이 누락되어 있고, 보조경비정인 폭뢰-21호정이 함정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으로부터 1950년 5월 27일 구매, 인수한 PC 3척을 함정세력에 포함시켰고, 폭뢰-21호정은 보조경비정이기 때문에 함정세력에서 제외시켰다.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372.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국방부, 1987), p. 317.

스 해군 소장은 봉쇄 및 호송작전에서 한반도 해역에 익숙한 한국해군의 참전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자신의 예하에 한국해군(제95.7기동전대)을 두고, 1950년 10월 23일 호위함(PF) 2척을 한국해군에 양도하였다. 이 배들은 11월 5일에 PF-61(두만강)함과 PF-62(압록강)함으로 명명하였다.⁵²⁾

1951년 6월 20일부터 스미스 제독에 이어 제95기동부대장을 맡은 다이어 소장은 봉쇄 및 호송작전에서 기여한 한국해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해군에게 PF함을 더 양도해 줄 것을 미 해군에 건의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한국해군도 이전부터 PF함의 추가인수를 거듭 요청해 왔고, 마침 다이어 제독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게 되자 미국은 1951년 10월 8일에 PF-63(대동강), PF-65(낙동강) 2척을 추가로 한국에 양도하였다.⁵³⁾ 그리고 1952년 9월 2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의 PF-4함이 추가로 인수되었다. 11월 15일 PF-66(임진강)함으로 명명된 이 배는 1952년 5월 21일 PF-62(압록강)함이 미국의 레이너(Rainer)함과의 충돌로 퇴역함에 따라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충세력이었다.⁵⁴⁾

이처럼 한국해군은 전쟁 중 2,300톤급 PF함 5척을 인수하였는데, 이 중 1척이 미국의 군함과 충돌로 인하여 퇴역됨에 따라 모두 4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PF함을 보유함으로써 한국해군이 연안작전 위주에서 벗어나 근해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해군력으로 증강되었다.

한국해군은 1952년 1월 21일에 미 해군의 PC-425함과 PC-600함을 인수하였다. 이후 1952년 5월 3일 부산의 해군본부 부두에서 거행된 명명식에서 PC-425함은 PC-705(한라산)함으로, PC-600함은 PC-706(묘향산)함으로 각각 명명되었다.⁵⁵⁾

PC 2척을 인수한 후 1952년 5월에서 6월간 한국해군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PC(구잠함)보다 작은 PCS(구잠정) 4척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4척의

52)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 해군본부, 1992, p. 960.

53) 위의 책, p. 963.

54) 위의 책, p. 966.

55) 위의 책, p. 963.

PCS는 8월 31일에 PCS-201(수성), PCS-202(금성), PCS-203(목성), PCS-205(화성)로 명명되었다.⁵⁶⁾ 구잠정을 인수함으로써 한국해군은 최초로 구동장치를 갖춘 40밀리 2연장 포가 장착된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천해의 다도해로 구성된 한반도 해안에서의 작전에는 소형 고속함정이 필요하였다. 마침 미 해군의 고속정이 일본의 사세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군참모장 손원일은 미국해군에 고속정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미 해군이 응하게 되어 한국해군이 1952년 1월 24일 PT(어뢰정) 4척을 인수하였다.⁵⁷⁾ 2월 7일에 PT-23(갈매기), PT-25(기러기), PT-26(올빼미), PT-27(제비)정으로 명명된 어뢰정들은 고속기동이 가능하여 한국해군 함정에서 가장 빠른 배였다. 이 배는 속력 41노트, 톤수 56톤으로 선체가 목재로 되어 있었고 40밀리 포 1문과 5인치 로켓발사대까지 장착되어 있었다. 어뢰정이지만 어뢰는 없었다. PT-23정과 PT-26정은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 작전에 투입되었고, PT-25정과 PT-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로써 한국해군이 북한해군과 같이 어뢰정을 보유하게 되었고, 고속정의 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2년 1월 21일 PC 2척 인수와 함께 미국의 오리건주 에스토리아에서 미 해군의 LSSL 2척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LSSL-77은 LSSL-107(영흥만) 정으로, LSSL-91은 LSSL-108(강화도) 정으로 각각 명명되었다.⁵⁸⁾ LSSL 2척이 인수된 지 수개월 후 한국해군은 1952년 10월 20일 일본의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의 LSSL 2척을 또 다시 인수하였다. 인수한 2척의 LSSL은 1953년 1월 10일에 LSSL-109(보성만)와 LSSL-110(영일만)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대부분 함정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것이었지만, 한국해군은 1953년 6월 30일 네덜란드로부터 유조함 1척을 구매하였다.⁵⁹⁾

56) 위의 책, p. 965.

57) 위의 책, p. 964.

58) 위의 책, p. 964.

59) 위의 책, p. 967.

인수된 함정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해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배로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병력과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지에서 불가동 상태에 있었다. 한국해군은 미 해군과 협조하여 미국의 에스토리아, 샌디에고, 일본의 요코스카, 사세보 등에 정박해 있던 함정들을 인수한 것이다.

1950년 7월 1일, 한국해군은 정부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교통부에서 운용 중이던 LST-802(철웅), 803(안동), 805(천보), 806(용비)과 AKL-902(인천), 903(원산), 905(진남포), 906(성진) 등 8척을 인수하였다. 같은 날 한국해군은 교통부에서 운용 중이던 LST 울산호·안동호·조치원호·삼랑진호와 AKL 김해호·여주호·왜관호·충주호 등 8척을 징발하였는데,⁶⁰⁾ 이 배들은 해군의 자산이 아니었다. 7월 5일에는 운항이 불가능한 함선을 예인하는데 필요한 ATA-1(인왕)을 교통부로부터 인수하였다.⁶¹⁾ 해군이 교통부로부터 인수한 LST 4척, AKL 4척, ATA 1척은 미국에서 도입된 배들이었다.

한국해군이 전쟁 기간에 획득한 함정은 <표 2>와 같이 PF함을 비롯해 모두 30척이었다. 국내에서 건조한 PG(제2층무공)와 네덜란드로부터 구매한 AO(천지)를 제외하고 28척 모두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함정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함정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하여 노후되었지만,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해군에게는 큰 전력이었다.

전쟁 중에 다수의 함정이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 이전의 37척에서 휴전 시의 함정세력은 <표 3>과 같이 56척으로 증가하였다. 함정유형도 소해정(YMS, JMS) 위주에서 PF(호위함), PC(구잠함), PCS(구잠정), PT(어뢰정), LST(상륙함), AKL(수송함)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로서 한국해군은 대함전, 대공전, 대잠수함전, 상륙전, 수송작전 등 성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60) 위의 책, pp. 961-966.

61) 위의 책, p. 960.

<표 2> 6·25전쟁 기간 획득한 함정세력

함정유형	함정명	인수일자	함정유형	함정명	인수일자	
PF (호위함) 5척	두만강(61)	1950.10.23	LST (상륙함) 4척	철옹(802)	1950. 7. 1	
	압록강(62)	1950.10.23		안동(803)	1950. 7. 1	
	대동강(63)	1951.10. 8		천보(805)	1950. 7. 1	
	낙동강(65)	1951.10. 8		용비(806)	1950. 7. 1	
	임진강(66)	1952. 9. 2				
PC (구잠함) 2척	한라산(705)	1952. 1.21	LSSL (대형상륙정) 4척	영흥만(107)	1952. 1.21	
	묘향산(706)	1952. 1.21		강화만(108)	1952. 1.21	
PCS (구잠정) 4척	수성(201)	1952. 5.20		AKL (수송함) 4척	보성만(109)	1952.10.20
	금성(202)	1952. 5.20			영일만(110)	1952.10.20
	목성(203)	1952. 5.26	인천(902)		1950. 7. 1	
	화성(205)	1952. 6. 9	월산(903)		1950. 7. 1	
PG (경비정) 1척	제2충무공(315)	1951. 8.25	AO (유조함) 1척	진남포(905)	1950. 7. 1	
						천지(2)
PT (어뢰정) 4척	갈매기(23)	1952. 1.24	ATA (예인함) 1척	인왕(1)	1950. 7. 5	
	기러기(25)	1952. 1.24				
	올빼미(26)	1952. 1.24				
	제비(27)	1952. 1.24				
계	30척					

출처: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대전: 해군본부, 1992)에서 발췌 정리.

<표 3> 전쟁발발 이전과 휴전 시 함정세력 비교

(단위: 척)

시 기	계	함정 유형													
		PF	PC	PCS	PT	PG	YMS	JMS	LSSL	LST	AKL	LCI	ATA	GB	YO
전쟁발발 이전	37		4			1	17	10		1	1	1		1	1
휴전 시	56	4	5	4	3	2	13	8	4	4	5	1	1	1	1

출처: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편제사』(대전: 해군본부, 1992)에서 발췌 정리.

함정 장비면에서도 전쟁기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6·25전쟁에서 한국해군의 주력함으로 활약을 했던 PF함에는 3인치 포와 50중기관총을 비롯한 대잠병기인 대잠전방투척기(hedgehog), 폭뢰(depth charge), 음탐기(sonar), 레이더(radar) 등 당시의 최신 무기·장비가 구비되어 있었다. 전쟁발발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구매된 PC함에는 미국의 철거 조치로 대잠전방투척기, 폭뢰, 음탐기, 레이더 등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PF함과 PC함에 3인치 포, PCS정에 40밀리 2연장 포, 그리고 고속기동력을 가진 PT정에 40밀리 포 1문과 로켓발사대까지 장착됨으로써 화력과 기동면에서도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한국해군이 미 군정기부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소해정을 인수하였지만, 소해장비나 기술을 갖추지 못해서 소해전력의 수단보다는 주로 경비전력으로 운용되었다. 그런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적에 의해 부설된 기뢰로부터 많은 아군 함정이 피해를 입자 소해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1950년 10월 23일 YMS-501·502·503·507·513·514정 등 소해정 6척으로 제1소해전대를 창설하고, 10월 26일부터 1951년 4월까지 YMS 12척을 일본의 사세보에 파견시켜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소해전술 교육과 함께 소해장비를 설치토록 하였다.⁶²⁾ 이로써 소해정들이 실질적인 소해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해병대가 전쟁발발 이전에 보유한 무기 및 장비는 99식 소총, CAR 소총, 권총 등 개인화기를 비롯하여 LMG 6정 HMG 3정, 60밀리 박격포 42문, 81밀리 박격포 2문에 불과하였다.⁶³⁾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해병대는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현장에서 미 해병대로부터 직접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았다.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는 고길훈부대가 7월 22일 여수에서 수령한 M1 소총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정상군원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김성은부대는 전투 중 통역관인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50. 6~1961. 5』, 국방부, 1987, p. 380.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부, 1977, p. 662.

현봉학을 통해 피폐속부대인 미 25사단 제27연대의 군수장교에게 요청하여 7월 30일 마산에서 SCR-300 무전기 3대와 경기관총 4정, 자동소총 15정, 탄약 등을 지급받았다. 일선에서 전투 중인 지휘관에게도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아군에게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미군 무기로 무장된 김성은부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8월 1일부터 시작된 진동리지구 전투를 비롯하여 통영상륙작전 등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⁶⁴⁾

한국해병대는 1951년 11월 7일에 105밀리 곡사포를 지원받아 최초로 편치불전투에서 미 해병 제1연대에 화력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미 해병대로부터 M36 전차 22대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해병대는 연합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미 해병대의 직접군원에 의해 지원받음으로써 휴전 시에는 M1, CAR 등 개인소총을 비롯하여 BAR·기관총·3.5인치 로켓포·박격포 등 공용화기와 105밀리 야포, M36 전차 등을 갖추어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였다.⁶⁵⁾

5. 맺음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공산권 세력의 도전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조직하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 결의로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시켜 전쟁이전 상태의 남한국토를 회복한다는 전쟁목표를 정하고 군사력을 투입시켰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전쟁하에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64) 김성은 증언(2001. 11. 30, 2004. 8. 27).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국방부, 1987, p. 381.

유엔이 유엔군을 통합 지휘할 권한을 미국에 일임하자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였다. 맥아더는 미 극동군사령부를 비롯하여 미 극동해군과 공군 조직을 통해 작전지휘체계를 수립하고 유엔군을 지휘하여 지·해·공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보유한 무기, 장비, 탄약 등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직접 참전군에 지원하는 직접군원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전쟁 중에 수행한 대한군사정책은 한국해군력 증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첫째, 한국해군의 조직 및 부대 발전에 미친 요인은 유엔군의 작전지휘체계라 할 수 있다. 미 극동해군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원활한 작전수행과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엔해군의 작전지휘체계와 연계하여 조직과 부대를 개편하였다. 개편의 특징은 유엔해군의 상대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역작전 및 성분작전 체제로의 조직·부대 정비라 할 수 있다. 조직 및 부대 정비와 함께 해군의 병력은 7,790명에서 휴전 시에는 42,362명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둘째, 한국해군의 함정·장비 증강에 미친 요인은 유엔해군의 연합작전과 미군의 직접군원이었다. 한국해군은 전쟁 당사국으로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과 장비가 필요하였고, 미 해군도 한반도 해양환경에 익숙한 한국해군과 연합작전을 위해 전투함을 비롯한 다양한 함정과 장비를 한국해군에 제공하였다. 전쟁발발 이전 소해정 위주의 한국해군은 성분작전이 가능한 호위함, 구잠함정, 어뢰정, 상륙함정 등을 갖추게 되었다. 함정세력은 전쟁발발 이전 37척에서 휴전 시에는 56척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해군의 각 전력이 증강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해군력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전쟁발발 이전 '내해방어 해군력' 수준에서 휴전 시에는 '근해방어 해군력'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주력함이 PC함에서 PF함으로 바뀌었고, PF함은 2,300톤으로서 450톤의 PC함보다 약 5배가 많고, 장비면에서도 대

잠전방투척기, 폭뢰, 음탐기 등이 장착되어 있어 근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 2009. 3. 9, 심사수정일 : 2009. 4. 20,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6·25전쟁,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한국해군력, 조직·부대, 함정·장비, 유엔군, 연합작전, 작전지휘체계, 군원, 북한해군력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olic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upon the ROK
Naval Power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Organization and Unit, Warship and Equipment —

Lim, Sung-chaе

With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US) occupied South Korea and passively supported South Korea with military assistance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st power. After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invasion broke out in 1950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judged it as a challenge from the Communist power and dispatched troops,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ROK) with military assistance actively.

The US received a commission of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United Nations and conducted a war with the United Nations(UN) Forces under the command of the U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war which was to repulse the NKPA behind the 38th Parallel and regain the territories. The US established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and chose a direct military assistance method by the US Forces such as tanks, warships, aircraft, ammunition and oil for the participant in a war at the local areas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war effectively.

In this way, the military policies for the ROK that the US carried out during the war had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ROK Naval Power.

1. The factor of the ROK Navy's development of organization and unit is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The ROK Navy, as a UN Navy's subordinate unit, reorganized its formation and units linking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of the UN Navy. The characteristic is reorganization for sea area operations and component operations suitable to maximum naval power demonstration and harmonious combined operation accomplishment.

2. The key factor of the reinforcement of the ROK Navy's warships and equipments is a direct military assistance by US Forces and Combined Operations of the UN Navy. The ROK Navy, as far as the country was concerned in war, needed the combat means to accomplish the combined operation actively, also the US Navy had no choice but to support the military aids directly for the ROK Forces to conduct a war rapidly. The benefits corresponded from both sides, the ROK Navy was able to obtain a variety of warships and equipments from the US Navy. At the Armistice the ROK Navy was armed with many kinds of warships that made component operations possible, which the minesweeper was the main warship before the war broke out.

As the reinforcement of each part strength, the operational accomplishment ability of the ROK Navy was improved within three years remarkably. It can be said that the ROK Navy experienced a great development by turning the level from "Inshore territorial defense naval power" before the war broke out into "Offshore territorial defense naval power" at the Armistice. This evaluation is based on the ability of accomplishing operations offshore with the aspects of the tonnage and equipment of the Frigate(PF) which was the main warship. At the same time, the quantity of warship increased to 66% more than before the war broke out, and the ROK Navy possessed many kinds of warships that were able to accomplish component operations.

As a result, the Korean War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ROK Navy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Because the

ROK Navy was able to have the ability to defend its own territorial waters independently as a sovereign nation due to the US policies and support during the war.

Key Words: the Korean War, United States Military Polic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Naval Power, Organization and Unit, Warships and Equipments. United Nations Forces, Combined Operations, Operational Command System, Military Assistance, Naval Power of North Korea